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파견대학	오카학원대학	파견기간	한 학기
귀국여부	2월 15일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카학원대학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나고야시 바로 옆이라 나고야 중심지까지 지하철 20~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의 반 정도입니다. 학생 수가 많지않고 여자들만 있어서 두루두루 친한 분위기이며 유치원도 붙어 있어서 밝은 분위기입니다.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그닥 좋지 않아서 나고야 중심지까지 나가야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좋았습니다.
2023-2학기 수업	수업은 총 6과목을 들었습니다. 1. 일본어 유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하는 수업이며 3시간 연강수업입니다. 학교에 속해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책을 복사하여 프린터물을 주시기 때문에 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파견간 학기에는 저까지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명한명 새새히 봐주셨습니다. 매주 한자 시험과 중간, 기말 고사가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2. 테니스 스포츠 과목을 선택하면 4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과목이 오카학원 재학생들한테는 필수과목이라 학생들이 많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듣을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를 선택하면 소규모로 들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는 저까지 7명이서 들었습니다. 이론 수업이나 시험은 없고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만 계속 연습합니다. 나고야는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까지도 계속 야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만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배구로 대체 수업을 합니다.

	3. IT 패스포트 IT 패스포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컴퓨터활용 비슷한 시험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기말고사 하나만 있습니다. 매주 프린터물을 나누어주시고 따로 책은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험 볼 때 번역기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였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4. 컴퓨터 4 두 달 동안은 엑셀, 컴퓨터 이론을 배웁니다. 나머지는 3D 모델링을 만들어 3D프린터로 출력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까지 6명이었던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한명씩 세심하게 봐주십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평소에 하던 작업물들을 저장해두면 그걸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5. 엑셀 프로그래밍 엑셀보다는 프로그래밍 쪽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엑셀을 배우고 싶다면 차라리 위에 컴퓨터 4 수업이 더 적합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으며 평소에 하던 작업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6. 세미나 3 필수 수업입니다. 뒤에 숫자는 학년입니다. 3학년 이상은 3에 들어가고 그보다 낮으면 2에 들어갈겁니다. 제가 선택한 세미나는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고 선생님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발표하고 저는 한국에서 썼던 졸업논문과 일본의 아동용 책을 읽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발표가 3번있었습니다. 발표 준비 빼고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서 괜찮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선생님과 교무처 담당자께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해주십니다. 구약소, 은행 계좌 발급등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ESC실이라는 컴퓨터실 같은 곳을 감독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은 없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학교 축제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에는 덥고 햇볕이 뜨겁기에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영햐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고 1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기에 두꺼운 패딩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친구들말로는 나고야의 운전은 험하다고 했으나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걸어서 7분 정도에 위치한 빌라 원룸에서 살게 됩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20분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10분안으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약이 제공되나 바퀴벌레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넓은 복도 끝 방을 제공 받아서 쇼파가 있었지만 다른 방은 없습니다. 티비, 밥솥, 전자렌지 등 웬만한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 아니기에 히터를 틀고 살아야해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불 또한 학교에서 제공해줍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테이블만 있고 책상은 없어서 공부하실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 윗집은 조용하고 옆집은 공실이어서 조용했으나 다른 유학생은 소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람이 세고 이중창이아니라서 바람에 의한 소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세는 물론 수도세, 전기세 같은 요금도 지불해줍니다. 학교는 도요아케시이나 숙소는 나고야시에 속해 있어서 나고야시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식당은 400엔 정도입니다. 두가지 식당이 있으며 저는 체리프라라고 하는 오믈렛과 파스타를 파는 식당에서 주로 먹었습니다. 전자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데워 먹어도 됩니다. 식당은 점심에만 운영합니다. 날마다 다른 푸드트럭이 오기 때문에 푸드트럭에서 사먹어도 됩니다. 저녁은 주변 슈퍼에서 장봐서 만들어 먹거나 우버이츠로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안걸립니다. 나고야역까지 간다면은 아리마츠역에서 출발하는 쪽이 100엔정도 쌉니다. 아리마츠역에서 출발한다면 나고야역까지는 360엔 사카에는 500엔 정도이며 환승을 한번 해야합니다. 아리마츠역에서 숙소와 3분정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까지는 220엔입니다만 버스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출국 : 180,000원(제주항공) 입국 : 240,000원(대한항공)	
Fees	없음	오사카 usj를 가는 25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 인원 미달로 취소되었습니다.

보험료	월 2000엔 정도 (국민건강보험료)	저는 초반에 6개월 분을 한번에 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숙소	없음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
식비	월 40000엔 정도	
교통비	나고야 역 - 360엔 사카에 - 500~600엔	
책값	없음	수업마다 다름
기타1	+ 6000엔	ESC일로 달에 6000엔 정도 받습니다.
기타2		
합계	월 60000엔	생활비만

5. 출국 전 준비사항

숙소에 대부분의 물건이 구비되어 있고 학교에서 제공 해주기 때문에 가볍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들을 많이 챙기지 말고 집 안은 춥기 때문에 외출복보다는 실내복을 따뜻한 걸 챙기는게 좋습니다. 책상이 없고 테이블만 있으니까 방석이 있으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 파견에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 상태로 가서 초반 적응이 어려운 거 뿐입니다.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이 없고 일반 재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껴야 하기에 초반에는 일본어를 잘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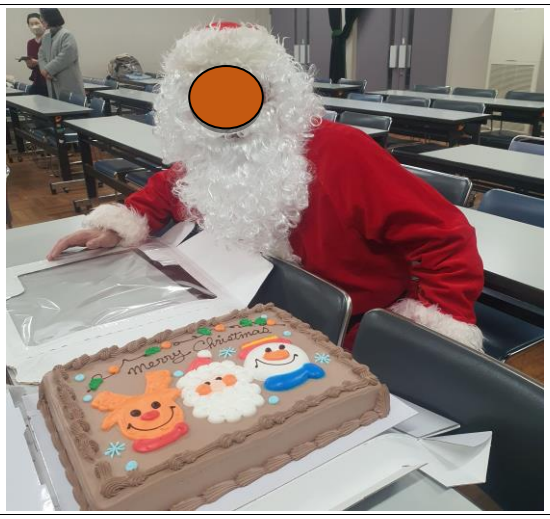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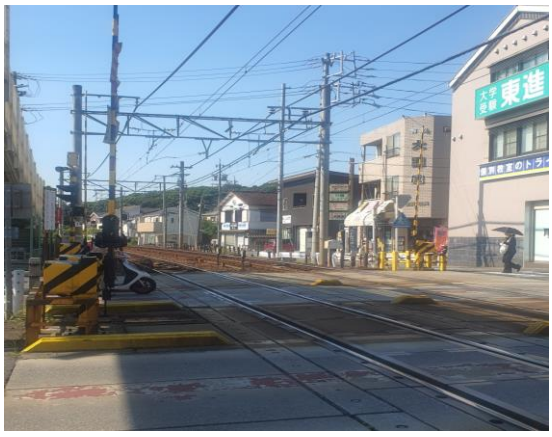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로 농담이나 장난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유학생 발표회 때 신기하다고 했더니 일본 전체의 문화는 아니고 오카학원대학만의 문화라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수업을 하나 모르는 점이 있어도 쉽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라 편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학교는 아니라서 유학생 전용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점 덕분에 일본어 실력도 빨리 늘고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학교에다가 학생 수도 많지 않아서 모두 친한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학교 행사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없이 모든 학생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4학년이기도 하고 외국 관련 학과도 아니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오길 잘 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오히려 한 학기만 파견 온게 후회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도 오카학원대학에서의 생활도 모두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td><td>  </td></tr>
<tr><td>코메다커피의 모닝</td><td></td><td>크리스마스 파티</td></tr>
<tr><td>  </td><td></td><td> </td></tr>
<tr><td>아리마츠역</td><td></td><td>아리마츠 봉사활동</td></tr>
<tr><td> </td><td></td><td> </td></tr>
<tr><td>도요아케시 쓰레기처리장</td><td></td><td>학교 근처 카이센동 집</td></tr>
</table>